

시적의치상 (trial denture base) 와 교합제 (occlusion rim)

1. 시적의치상

의치상의 첫째 조건은 안정성에 있다. 즉 시적의 치상을 구강내에 시적했을 때 제 위치에서 떨어지거나 움직이면 안된다. 또한 구강내와 교합기를 오고 가면서 변형이 안되는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의치상을 만드는 재료로서는 extrahard wax, shellac base plate, autopolymerizing resin을 들 수 있는데 이중 추천할 만한 재료로서는 autopolymerizing resin을 들 수 있다. 이유로서는 가장 단단하고 안정성이 있으며 변형이 적다. 한편 단점으로는 치아배열 시 의치상을 삭제해야 하는 점과 험몰부위(undercut)가 심한 경우 blockout의 양이 많아지므로 느슨해질 수 있다.

제작법은 작업모형에서 험몰부위를 blockout하고 분리제를 바른 후 sprinkle on method로 direct resin을 올린다. 적절한 두께 (resin base가 변형이 안될 정도)가 되면 pressure cooker에 넣은 후 30파운드 압력에서 10분간 지난다. 다음에 trimming 을 하면 된다.

만일 험몰부위가 심한 경우 많은 blockout 때문에 의치상이 느슨해지면 blockout한 왁스를 작업모형에서 제거하고 시적상 내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작업모형상에서 고무인상제로 인상을 뜨면 훨씬 더 안정성이 있는 의치상을 얻을 수 있다.

2. 교합제 (Occlusion rim)

1) 교합평면의 위치

상악 교합제의 전치부 교합평면과 눈의 양쪽 동공을 이은 선과 평행하여야 한다. 구치부의 교합평면은 ala-tragus 선 (일명 Camper's line)과 평행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Fox plane guide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전치부의 교합제의 길이는 휴식상태에서의 상순이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한다.

하악 교합제의 교합평면은 앞쪽은 구각과 일치하고 구치부는 후구치삼각부위 (retromolar pad)의 상방 $\frac{2}{3}$ 나 $\frac{1}{2}$ 을 이은 선과 일치하면 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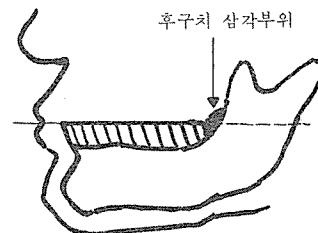


그림 1.

2) 악궁의 모양

기본적인 모양은 neutral zone 개념에 입각하면 된다. 또한 골흡수양상을 잘 인식해서 원래의 치아 위치에 교합제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

상악의 악궁형태은 상악의 골흡수형태가 내측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치조제능 (ridge crest)보다 큰 형태의 교합제를 형성하여야 한다. reference point로는 절치유두에서 8~10mm 앞쪽에 중절치의 절단면이 위치하여야 하며 절치유두의 정중앙부위 위치에 겹치의 tip이 위치하게 된다.

하악의 구치부는 골흡수형태가 외방으로 행해지므로 교합제는 내측으로 위치하여야 한다. reference point로는 후구치 삼각부위의 설측과 소구치부위의 치조제능의 설측을 연결한 선에 구치부의 설측면이 위치하게끔 교합제를 형성한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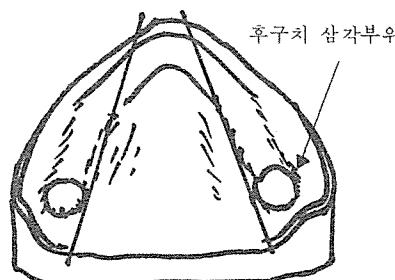


그림 2.

崔鍾煥 치과기공소

서울 · 종로구 숭인동 1081

전 화 : 93-6671 . 93-2998